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계란생산에 주력

□ 취재/김동진 기자

마 당 양계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채란업은 '90년대 이후 무창자동화계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면서 '97년 현재 자동화 수준(농가당 5만수 이상 사육수수)은 전체 사육수수와 비교해 볼때 38.4%로 집계되고 있어 자동화 시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올 7월부

터 양계산물이 전면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 사양가들로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을 경우 외국산물에 잠식될 우려가 높게 현실이다. 과연 채란양계인들은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본고는 충북 제천에서 부모님이 경영해 오던 채란업을 대물림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업

을 이끌어가고 있는 갈미농장 김용재 사장을 만나 채란업의 현실과 21세기의 경영구상을 들어보았다.

1. 대를 이은 양계경영

갈미농장(충북 제천시 이월면 중산리)은 '70년대 중반 김태수(75세)씨가 채란업과 양돈업을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20여년간 관리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8남매(3남5녀)중 막내로 태어난 김용재씨(30세)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채란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축산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댓가가 돌아온다는 것을 돼지의 분만과정에서 느끼면서 축산에 매력을 느꼈다는 김사장은 대학(축산전공)을 졸업하고 군 제대 후 P사료회사에서 4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재래식 양계시설



△ "채란업계에서 1인자가 되어지요."라고 의지를 보이는 김용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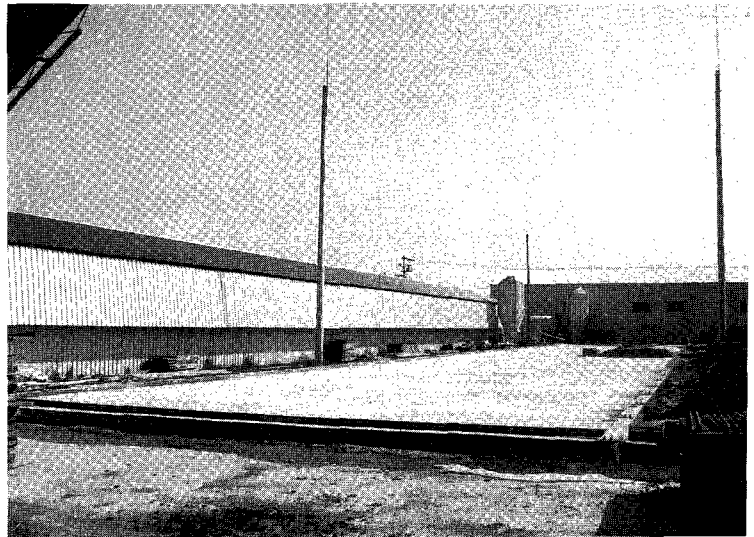
('95년 당시 15,000수)을 보수하여 업을 이어갈 계획을 하였으나 완전 자동화에 뜻을 굳히고 '96년도에 정부로부터 총 4억의 대출자금(5년거치 10년상환 연리5%)을 받게 되면서 지난 6월 1개동을 완성하였다.

2. 농장현황 및 사육관리

앞으로 15만수 계획을 갖고 있는 갈미농장은 현재 1개동에 5만수가 관리되고 있는데 계사면적은 폭이 13m, 길이가 80m에 5단 6열의 무창직립식 자동화계사로 집하장까지 포함해 총 공사비가 11억원이 들었는데 계사 1동에 6억5천만원, 집하장 시설(지하실 포함)이 4억5천만원(선별기 2억5천만원)이 투자되었다.

계사시설은 CRD환기방식이 부착된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케이지를 선택하였고 타기자재와 함께 혼용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결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설(사료빔까지 포함)을 일괄적으로 이 회사에 맡겨 건립을 하였다.

현재 설치된 CRD 환기방식은 계사 뒷부분에 설치된 19개의 배기팬이 동시에 자동으



△ 5만수(5열6단)가 사용되고 있는 갈미농장 전경(뒷편은 계란집하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측에는 같은 규모의 계사가 들어설 자리에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다. -계사 주위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어 낙뢰에 대비하고 있다.)

로 개폐가 이루어져 보다 쾌적한 환기를 유지시켜주는데 외부온도에 상관없이 2℃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당 25,000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 세척, 포장기는 세척과 건조과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거래처 및 상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파란방지와 원활한 집란을 위해 집하장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계사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집란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계분처리하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4~5일

에 한번씩 계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사장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 눈을 뜨면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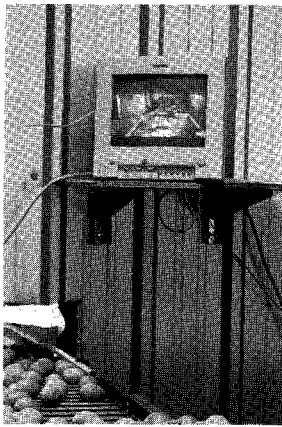
5시 20분 부터 하루 2시간 간격으로 8번 사료가 급이되기 때문에 우선 메인콘트롤 박스를 통해 계사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계사내부에 들어가 급수상태를 확인한다.

계사내부에는 급수상태 점검, 사계 처리 및 청소, 전체적인 기계점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3번 이하로 출입을 제한한다.

6단이다 보니 계사 한동을 돌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직접 관찰하고 관리하



△ 시간당 25,000개의 계란이 세척, 건조, 포장되는 자동선별기



◁ 계사내부의 집란과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

는 것이 닭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일만은 김사장이 손수 관리한다.

현재 28주령된 닭이 91%를 이루고 3주째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도 큰 무리가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김사장의 헌신적인 계사관리에 기인할 수 있다.

김사장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전이다. 정전이 되었을 경우 비상창문이 열려 일시적인 환기를 유지시켜주지만 만

약을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비치해놓고 있다.

또한 타농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중의 하나는 계사주위로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만의하나 위험요소를 없애겠다는 김사장의 완벽함이 드러나 있다.

3. 채란업의 당면문제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김사장이 양계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질병을 지적하였다.

현재 국내 채란농장의 80~90%는 질병으로부터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갈미농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김사장은 말한다. 최근 채란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금티푸스에 대해 김사장은 외국에

서는 30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후진국성 질병이 쉽게 차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질병예방측면에서 아직 후진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국내 방역 관리에도 허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질병 차원에서 사양가들과 힘을 합하여 범국가적으로 청정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허가문제에 대해 계사 위치와 계분처리시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뱀새가 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말만 믿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현 제도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허가과정에서는 계사의 위치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쪽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용자해주는 금리는 5% 수준으로 일반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경쟁력 제고(양계장의 수익성 등)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앞으로 농장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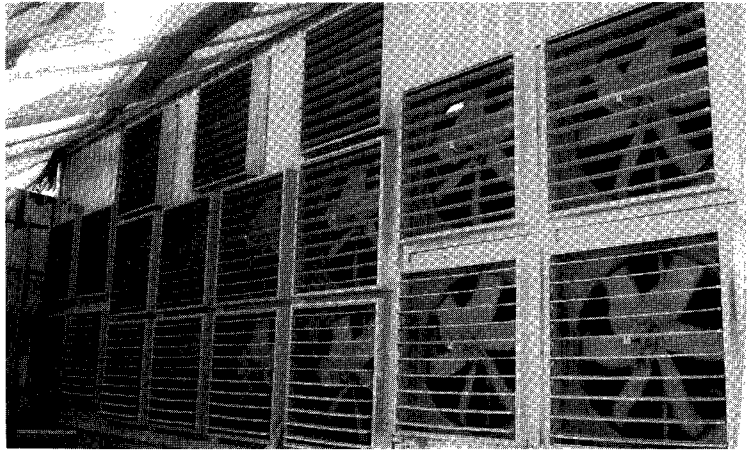
“양계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되어지요”라고 2000년대를 바라보며 미래상을 펼쳐보인다.

현재 사육되어지는 5만수 규모 외에 나머지 한개동은 '98년 2월에 계사가 준공되어 중추를 입추시킬 계획에 있다.

이미 병아리는 믿을 수 있는 중추농장에서 육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갈미농장은 앞으로 3년후에 같은 규모로 1개동을 더 지어 총 15만수를 계획하고 있다. 김사장은 현재 국내 채란업이 과다한 시설투자자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수입 개방 이후에도 양계는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동화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이미 75%가 자동화가 된 상태이며 가공란 소비율도 40%를 넘어 소비증가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비교해 볼때 자동화율 30~40%, 가공란 소비율 10%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김사장의 견해이다. 무창 자동화 계사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 19개의 첩이 동시에 개폐되는 환기시스템을 적용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김사장은 앞으로 신축하는 계사는 환기를 중점으로 하여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설치된 터널식을 보완하여 다음 계사는 크로스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정전이 되었을 경우 터널식 보다 크로스식이 환기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방역관리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사료차까지 농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계획인데 방역차단막을 설치하고 소독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물론 메인사료통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농장밖에서 사료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계란을 우선으로 하는 갈미농장은 현

재 영양란으로 퓨리나와 계약 유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목표로 4~5개 농장과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함께 유통에 참여할 계획으로 기초작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다.

또한 가공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가공란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온천란 등 단계적으로 가공란 유통에도 참여할 계획에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채란업의 당면문제는 아직도 많이 있으며 채란인들이 풀어가야할 문제가 대부분이다. 갈미농장 처럼 의욕을 가진 젊은 인력이 속속 채란업에 관심과 정열을 다한다면 선진 양계국으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양계**